

아카루트 2020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

# 러시아 극동지역 코리안의 이주레짐

The Migration Regime among Koreans  
in the Russian Far East

저자 | 박현귀(Hyun-gwi Park)

번역 | 송영화 (성균관대 사학과)

▶ 이 논문 번역은 [아카루트 2020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DBpia



아카루트

# 러시아 극동지역 코리안의 이주레짐1) (The Migration Regime among Koreans in the Russian Far East)

박현귀(Hyun-gwi Park)

\*번역: 송영화 (성균관대 사학과)

## 초록

이 글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이주 시기별로 형성된 다양한 코리안 집단의 정착경험을 논한다. 일반적으로 이주 연구는 공간적 차원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이 글은 이주의 시간적 차원에 주목하여 이주 시기의 차이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경험을 다양화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이에 더해 그 차이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한다. 필자는 러시아 연해주 코리안들 사이의 차이가 코리안 하위집단 간의 연합기반을 형성하였다는 점을 논증한다. 또한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 내 차이와 러시아 극동지역 코리안의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민족정체성을 이 장소가 어떻게 통합시키는지 보여준다.

키워드 : 이주, 시민권, 로컬리티 관념, 이주의 시간성, 러시아 극동, 연해주, 코리안

## 러시아 극동에서 포괄적 용어(UMBRELLA TERM)로서의 코리안

소련 붕괴 이후 뒤따른 이주 폭증은 보통 '민족 이주(ethnic migration)'<sup>2)</sup>라고 불린다 (Panarin 1999; Pilkington 1998; Vashchuk et al. 2002). 이러한 이주 폭증의 특징은 구소련의 민족성 문제를 중심에 둔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CIS국가에서 토착민족주의(aut

1) Hyun-gwi Park, The Migration Regime among Koreans in the Russian Far East, *Inner Asia*, 15(1), 2013, Brill, pp. 77-99.

2) \*역자 주: 'ethnicity'는 문화적으로 통합된 인간집단의 속성을 나타낸다. 흔히 민족성 또는 종족성으로 번역된다. 이 글에서는 소통의 편의상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성으로 사용하였지만, '코리안의 종족성'처럼 강조해야하는 특정한 맥락이 있을 때만 종족성으로 번역했다.

ochthonous nationalism)가 대두되어 폭력적인 내전이 발발했으며 대규모 난민과 강제이주자가 발생했다. 1990년대 초반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코리안<sup>3)</sup>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이러한 문제의 영향을 받은 민족 집단들 중 하나였다.<sup>4)</sup>

이 글은 러시아 극동지역 코리안 이주자를 중심으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코리안 하위집단들이 취한 다양한 정착 전략과 방식들을 보여주며, 광범위한 민족 집단이 지닌 동질성보다 그 내부적 차이에 주목했다. 이는 민족성이 지니는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개념에 기초한 포괄성을 조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지역의 다양한 코리안 집단에서 포괄성이 가진 한계를 강조하고자 함에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러시아 극동지역 코리안 사이에서 필자가 진행한 민족지학적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한 민족집단을 다른 민족집단들로부터 구별하는 절대적 범주로서가 아니라 관계적 용어로서 민족성 문제(question of ethnicity)를 다룬 인류학 연구를 통해 영감을 받았다. 리처드 워브너(Richard Werbner)는 남아프리카 ‘초 부족(supra-tribal)’ 민족성을 다룬 그의 연구에서 보츠와나 칼랑가(Kalanga)의 ‘코스모폴리탄 민족성(cosmopolitan ethnicity)’을 이해하기 위해 ‘우산’의 비유를 제안한다.<sup>5)</sup> 그의 주장에 따르면, 츠와나(Tswana)와 칼랑가라는 보츠와나의 상호 구성적인 두 민족집단을 지칭하는 사회적 범주는 ‘날씨가 어떨든 다소간 항상 펼쳐져 있는 우산’이다(Werbner 2002: 733).

두 집단 모두 정치공동체나 영토집단은 아니었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 시대에 남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주한 결과, 그들은 부족과 디아스포라에 걸쳐 ‘문화적으로 동류인 사람들의 더 넓은 범주’로 부상했다. 이 비유를 분석하기 위해 워브너는 보츠와나의 최대 다수집단인 츠와나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상대(Other)’ 집단으로서 칼랑가에 주목하여, ‘민족포용과 상호침투(ethnic inclusion and interpenetration)’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한편 츠와나는 칼랑가가 보츠와나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칼랑가의 충성심을 의심케 하는 역사날조를 행했다. 워브너는 칼랑가가 이러한 다수집단 츠와나에 대응하여 소수자 인식(minority identification)을 받아들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츠와나는 소수집단을 다루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츠와나 칼랑가를 ‘짐바브웨에 있는 그들의 동포(ethnic fellow)’와 의도적으로 연계시켰다(Werbner 2002: 735). 워브너는 칼랑가의 관점에서 이러한 민족 간 관계를 ‘소수화(minoritisation)’라고 하였으며, 20세기 중반 탈식민시대에 츠와나에 의해 어떻게 이 과정이 확대와 배제로 시작되었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또한 칼랑가가 기업가 엘리트의 결혼과 비즈니스 협력을 활용하여 배제 조치를 인도인(Indians) 및 츠와나와 같은 타 민족집단과 폭넓고 열린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일종의 기반으로 전도시킨 것에 대해

3) \*역자 주: 이 글에서 'Korean'을 한인이나 고려인이 아니라 '코리안'으로 번역한 이유를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사할린 한인과 고려인이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인이라는 용어는 이 글의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로 한인은 통상 '한국인으로서 해외에 사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한맥락으로 포섭되는 것을 피하고 다양한 맥락을 포괄하고자 '코리안'이라고 번역했다. 세 번째는 이 글에서 코리안(Korean)은 주로 러시아의 고려인을 일컫지만, 맥락에 따라 중국의 조선족, 남한사람, 북한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해 'Korean'을 '코리안'으로 번역했다.

4) 이 글에서 '연해주'와 '러시아 극동'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지만, 후자는 더 큰 행정적 범주이며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3-4년 필자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주로 우수리스크라는 도시와 연해주의 몇몇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필자는 대화 상대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5) \*역자 주 : '포괄적 용어'를 뜻하는 영어 표현 'umbrella term'은 다양한 하위개념을 단일한 공통 카테고리 아래에 포괄하는 상위용어를 뜻한다. 이는 우산이 어떠한 대상을 덮는다는 점에 착안한 비유적 용어이다.

조명했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후기 탈식민시대는 보츠와나의 국가 및 자본주의 경제 발전과 부합했다. 워브너는 이러한 탈식민이 칼랑가에게 국제적이라기 보다 국가적이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으며, 이는 이 글의 주요 논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츠와나 국경 너머에 거주하는 칼랑가 동포들과 협력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 경계가 유연했음에도 이들은 짐바브웨 칼랑가와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요점을 말하자면, 워브너의 민족적 용어로서 ‘우산’의 비유는 코리안들의 통합과 다양화가 문화적 차이의 이중활용(dual usage)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코리안다움(Korean-ness)’의 사례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 차이는 코리안 동포(fellow Koreans)를 타민족 집단과 구별할 뿐만 아니라(우산 펼치기) 다른 민족을 수용하고 그들과 연합할 여지를 남기는 내부적 차이를 강조한다(우산 접기). 그러므로 이 글의 민족지학상 과제는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경제적 풍토가 이 우산의 펼치기와 접기를 이끌어내는지 탐구하고, 그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글의 뒷부분에서 필자는 각각의 코리안 하위집단이 지닌 상이한 이주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어떻게 코리안 사이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 반이민정서와 국적법(citizenship law)<sup>6)</sup>의 변화를 배경으로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명한다.

이 지역에서 단일 민족집단의 다양화라는 코리안의 종족성(Korean ethnicity)은 독특한데, 이는 상이한 이주의 역사적 경험으로서 지역에 대한 그들의 합일성(integrity)을 확인 해주며, 또한 하위집단화는 지역형성에서 역사적 특수성을 암시한다.<sup>7)</sup> 1860년대 한반도에서 이주한 코리안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처음 도착한 이래, 한반도 북부지방과 러시아 사이 국경이 생성된 직후, 코리안은 이 지역에서 중요하지만 불편한 위치에 있었다. 20세기 초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코리안 인구의 변화는 식민지화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의 동요하는 입장을 반영하였다. 당국은 지역 식민화를 위해 코리안 노동력 사용을 허락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코리안이 지역 내 러시아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의심했다. 또한 코리안을 이 지역이 슬라브문명보다 동아시아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존재라고 여겼다.

이러한 모순은 1937년 약 175,000명에 달하는 코리안 전체인구를 ‘청소’하고 중앙아시아로 추방한다는 전체주의적 해결책을 불러왔다. 그 후 산업분야에 남겨진 공백은 슬라브계 주민의 이주로 채워졌으며,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군 주둔 도시의 설립과 외부 세계로부터의 국경 폐쇄를 통해 지역 안보가 강화되었다. 이 글은 코리안 주민과 지역 사이 모든 연결을 차단하고자 했던 전체주의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코리안의 존재가 지속되고 용인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그 수가 아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특별보안지역이었던 1980년대까지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sup>8)</sup>

상당한 수의 코리안은 1990년대 초 유라시아의 한쪽 끝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로부터 다른 끝쪽에 위치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어떠한 이

6) \*역자 주: 'citizenship law'를 '시민권법'이 아니라 '국적법'으로 번역한 이유는 국적법이 시민권법이라는 용어보다 한국에 더 친숙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국적과 시민권은 현실적으로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참정권까지 포함한 시민권은 소속으로서의 국적과 구분된다. 따라서 이 글을 번역할 때 국가의 울타리 안으로 소속시키는 맥락으로서의 법이라는 뉘앙스로 'citizenship law'를 국적법으로, 개인이 취득해야 할 권리로서의 'citizenship'을 시민권으로 나누어 번역했다. 또한 앤더슨이 제시한 'citizenship regime'은 '권리의 다발'을 다루었다는 맥락을 고려하여 '시민권레짐'으로 번역했다.

7) 한 심사위원은 코리안의 강제이주와 러시아 극동의 지역형성 사이의 이러한 통합을 알려주었다.

8) 코리안의 이주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국경안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던 한 심사위원의 의견에 감사를 드린다.

유로 많은 수의 코리안이 갑자기 러시아 극동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한 기사가 지역신문에 게재되기도 했다. 한때 이 지역에 대규모 코리안 인구가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사회주의 시대 동안 소련 전체에서 숨겨졌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더 극심하게 억눌렸다.

그러나 대중은 코리안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면서도 이를 걱정하고 불안해했다. 포스트 소비에트 과도기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 러시아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 이 지역의 운명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 러시아 극동에서 배제와 이주레짐

코리안의 상이한 사회적 이주 조건의 민족지학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필자는 험프리(Humphrey 2001)가 제기한 러시아 내 ‘불평등과 배제(inequality and exclusion)’의 문제를 짚어본다. 그는 ‘경제적 착취, 계급, 인종’과 같은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러시아의 ‘불평등’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이며 대중정서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이는 ‘배제 관행(‘exclusionary practices’)(2001:334)에서 유래한 것이다. 험프리에 따르면 “‘배제 관행’은 망명, 추방 또는 거주 및 취업의 제한과 같은 과정을 말하며,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만 사회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축출하지는 않는다.”(2001:333) 더욱이 이와 같은 불평등이나 배제 관행의 영향은 단일한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데, ‘박탈(dispossession)’의 어떠한 조건이자 역사적 변종으로서 그 경계가 지속적으로 재검토되며 재설정되고 있기 때문이다(2001: 348). 이러한 배제 관행의 난관 속에서 그는 ‘통합(unity, *edinstvo*)’에 대한 ‘불안의 연계(the nexus of anxiety)’로 표현되는 정치의 감정적 측면<sup>9)</sup>에 주목하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부터 미시적 차원, 이를테면 ‘집단 공동체(collective, *kollektiv*)’ 형태의 일반인 소그룹까지 만연해 있었다.

또한 이 글에서 필자는 배제관행이 1990년대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민에 대한 상이한 처우에서 배제와 포괄의 경계 혹은 집단공동체의 규모를 변화시켰다는 점을 논증한다. 1990년대 초에 소비에트 관습의 연속선상에서 이주에 의해 특정 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집단공동체와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씨족 또는 대가족 집단은 지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지는 못하였으나 마을이나 도시에 수용될 수 있었다. 오히려 일부 코리안은 구체제의 외부에 있기를 선호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존재했던 기존의 사회주의적 도덕성(socialist morality)에서 자유로워져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험프리가 암시한 것과 같이 1990년대 후반 배제관행의 초점이 사회경제적 단위로서의 집단에서 국가 단위로 옮겨갔다.(2001: 347) 특히, 2002년 국적법의 개정은 그러한 변화를 의미했으며, 필자는 1990년대 말부터 이주한 코리안에게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명할 것이다.

험프리(2001)는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미묘하고 복잡한 차이를 통찰력 있게 보여주었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민족적 사례를 통해 그의 연구를 보충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

9) 필자는 그러한 관행을 설명할 때 감정이 아닌 '사회성(socia(bi)lity)'(Simmel 1971)를 사용하곤 했는데, 감정은 오직 사회성의 실천에서만 관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코리안은 서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묘사할 때 차(茶) 대접의 예를 들었다.

해서, 필자는 배제 관행에도 불구하고 추방당하고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러시아 극동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고, 몇몇은 경제적 성공을 거두어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필자는 배제된 사람들에게 ‘배제 관행’을 대하는 전술과 전략이 있다는 것을 민족지학적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는 러시아 극동지역 코리안 사이에 어떠한 배제의 전환이 존재하며, 그것은 상이한 코리안 하위집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다. 이러한 전환은 러시아 집단공동체의 이중성, 즉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중적 위치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부에 위치하면 집단공동체에 대해 구속적 의무가 있지만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반면, 외부에 위치하면 집단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도덕성과 충성으로부터 자유롭지만(Humphrey 2001: 345)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필자는 또한 코리안 하위집단이 서로 연합하고 교류하는 관행을 개념화하기 위해 앤더슨(Anderson, 1996)의 ‘시민권레짐(citizenship regime)’ 개념을 빌려 조정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실제 관행을 설명하기 위해 앤더슨의 ‘시민권레짐’과 쌍을 이루는 ‘이주레짐 (migration regime)’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초점이 국가기관(state institution)에서 국영기업(the state enterprises) 바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연계와 교류로 이동한다. 앤더슨(1996:110)은 시베리아의 에벤키 순록 목축민(Evenki reindeer in Siberia)을 다룬 그의 연구에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지위, 집단공동체, 시민권레짐 내 개인의 삼각망(triangulation)’을 논한다.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에 대한 합의에서, 국영기업 내 개인의 위치는 시민권이라는 서양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암시하는 평등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보다는, 민족범주(nationality), 성별, 거주기간 및 교육 자격과 같이 그들의 상황에 대한 특정한 가정에 의해 평가되었다. 시민권레짐의 이러한 사회적 조건 아래, 앤더슨의 민족지학적 연구에서 현지인(locals)으로서 토착민(natives)과 러시아인으로서 전입이주민(incomers)이 일치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민족범주와 이주는 한 개인의 위치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방의 경우 민족범주와 이주자 사이의 관련성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현지인(local, *mestnyi*)이 반드시 토착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 글에서 논의된 사례에서 모든 전입이주민이 러시아인은 아니기 때문이다.<sup>10)</sup> 오히려 이 차이는 이주시기와 정착과정에 따라 변화한다. 기존 거주자(older residents)와 뉴커머(newcomers)의 차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보다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의 물결에 의해 재설정되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형성과 몇몇 중요한 사회범주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뿐만 아니라, 앤더슨의 시민권레짐은 국영기업을 중심에 위치시켰으나, 필자는 이주레짐이 시민권레짐과 나란히 존재하며, 국가 제도의 주변부 혹은 외부에 위치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국가 제도는 내부 및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상호 보완하고 침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두 개념은 더욱 필요하고 유용하다.

이주민과 현지인은 구소련 사회주의 국가제도의 붕괴에 대해 다양하게 대응했는데, 필자는 그 다양한 대응의 변화와 역동성을 포착하기 위해 이주레짐 개념을 제안한다. 이 글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하여 이 레짐에 위치한 코리안 이주민은 다양한 지위를 가졌으며, 이러한 지위는 1990년대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

10) 디아틀로프(Dyatlov)(2000)는 이르쿠츠크의 지역성과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는 러시아 극동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는 이르쿠츠크의 거의 모든 주민이 이민자라고 언급했다. 디아틀로프와 이 글에서 언급한 사례 모두에서 반(反)이민 정서가 나타난 것은 소련 시절 이후부터였다.

로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전술 및 전략에 따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모든 코리안 이주민(Korean migrants)이 열등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적어도 1990년대 후반까지 일부 코리안 이주민은 이주레짐에 능숙하게 대처하여, 기존 거주 코리안(older resident Koreans) 및 중국 코리안(Chinese Koreans, 조선족)와 동업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코리안 하위집단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각 집단은 중국 상품, 현지 인맥, 배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과 국내 경작에서 합법적인 사회공간 외부에 점유할 수 있는 능력 등 상대방이 갖추지 못한 것들을 교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험프리(2001)가 주목했듯이, 경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배제된 공간은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아래, 중앙아시아에서 1950년대에 이주한 코리안 집단과 1990년대에 온 코리안 집단 모두는 중국에서 이주한 코리안과 달리 소비에트적 가치라는 과거의 잔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로컬리티를 형성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필자는 소련 시대 및 이후의 이주 정책을 고려하며 코리안 집단들의 역사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에 존재하는 3개의 코리안 하위집단을 개괄한다.

## 소비에트 이주정책 외부의 ‘기존 거주 코리안’

소련 붕괴 이후 시작된 중앙아시아 코리안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쇄도가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반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기존 거주 코리안’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Lee 1998).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의 코리안(Koreans from Central Asia)은 거주하던 공화국 밖으로 이주하는 것을 1956년 이래 공식적으로는 허가받았다. 이주 허가의 배경은 1953년 스탈린 사후 찾아 온 정치적 ‘해빙기(metling, otoplenie)’였다. 코리안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때였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코리안은 1937년 이래 거의 20년 동안 중앙아시아에 정착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오직 소수의 코리안만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1956년 이후 귀환은 어떠한 국가적 계획에 따랐다고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sup>12)</sup> 즉, 이는 소련의 이주 관리 측면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없는 ‘비조직적’이고 ‘개인적’이며 ‘조용한’ 이주였다(Rybakovskii 1990). 1959년 전소련 인구조사에 따르면, 연해주의 총 인구 1,381,018명 중 1954년에서 1959년 사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코리안은 6,952명이었다. (*Itoki Vsesoiuznoi perepisi naseleniia 1959 goda*, cited in Vashchuk et al. 2002: 110). 198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코리안은 8,125명으로<sup>13)</sup>, 1959년과

11)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코리안은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으로 갔다. 일부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북한으로, 일부는 1940년대 후반 북한에서 러시아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감독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으로 보내졌다. 다른 일부는 북한 근로자의 자녀와 2차 세계대전 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겨진 사할린 동포의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했다.

12) 특히 소련시기 러시아 극동지역에 초점을 맞춘 이주의 유형화는 리바코프스키(Rybakovskii)(1990)를 참고하라.

13) 1959년에서 1989년 사이에 1,500명의 코리안이 연해주로 이주했다. 이 시기의 이주는 작업을 할당 받거나 연해주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은 소련의 이주 정책 기준에 따라 이주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이주한 다수의 코리안은 소련 시대에 국영기업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차지했다. 연해주의 코리안을 위한 『누가 누구지?(Who's Who)』라는 책에는, 이 시기에 이주한 코리안에 대한 인물정보가 많이 담겨있다. (Chen 2003을 참조하라).

1989년 사이 코리안 이주민의 수는 매우 적었으며, 당국이 슬라브 인구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펼친 결과 연해주의 전체 인구가 200만에 가깝게 팽창하였다. (*Itoki Vsesoiuznoiperepisi naseleniia 1959 goda*, Vashchuk et al. 2002:110 재인용).

1950년대에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귀환한 코리안은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며, 전통적 생계수단이었던 벼농사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했다. 김 게르만(German Kim)과 명 드미트리(Men Dmitriy)가 서술했듯이(1995),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와 관련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동을 중앙아시아 코리안의 전후(post-war)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일부로서만이 아니라, 소련 이주 정책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노동력은 소련경제에서 ‘생산수단’이었기 때문에(Ssorin-Chaikov 2003) 노동력의 중앙 할당 또는 ‘인구 이동의 통제’ (Kotkin 1995: 103)는 사회주의 국가의 ‘배급권력(allocative power)’의 전제조건이었다(Verdery 1998). 그러므로 이주 정책은 국가의 노동력 통제를 가능케 하는 데에 중요했다. 어떤 거주자들은 고정된 곳에서 거주하고 근무해야 했던 반면, 어떤 이들은 부족한 노동력이 채워져야 할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 소련 시대 이주 관행의 연속에는 국가 기관의 업무할당을 위해 ‘국가경제적 필요에 따른 최적의 이주’가 존재했고 (Buckley 1995: 904),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배급 네트워크를 지연시키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이며 ‘조용한’ 이주가 존재했다. 후자는 1930년대에 강력히 금지되었으며, 이후 그러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하여 소련의 낙후된 주변부 지역에서 정착민에게 많은 국가적 혜택을 보장해주면서 이주를 장려한 것과 대비된다.

노동력 분배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리와 의무의 기초가 마련됐다. 따라서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범주에 대한 암묵적이고 지배적인 합의가 존재했다. ‘전입이주민(incomers, *priezzhie*)’은 ‘특정한 프로젝트 혹은 임무로 파견된 사람’으로 북극권 시베리아에서는 ‘침입, 탐욕, 현지에 대한 몰이해라는 비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Anderson 1996: 102). 반면, 연해주에서는 제정러시아 때부터 ‘기존 거주자(old residents, *starozhily*)’와 ‘신 거주자(new residents, *novosely*)’ 사이에 지속적으로 차이가 존재했으나, 이후 뉴커머 유입의 물결이 차이를 통합하였다.<sup>14)</sup> 이러한 두 집단의 차이와 그 이후 차이가 줄어든 것은 정착 과정에서 지역의 후진성과 좌절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신 거주자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 기존 거주자의 불만을 이해하게 되었고 (cf. Vashchuk et al. 2002), 정착과정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변성에 대한 불만은 러시아 유럽지역과 대조를 통해 이들의 로컬리티와 정체성을 주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유럽지역과 대조적으로 로컬리티를 포괄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련이나 러시아 전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해왔다. 20세기 중반 이후 소비에트기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많은 코리안은 동아시아 국경지역이라는 지역의 주변성에 대한 표식이었다. 코리안은 그러한 공포가 그들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소수민족이라기보다는 기존 거주자로서 지역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난 몇 해 동안 지역의 주변성 개념을 내면화하고 깊이 현지화되었다. 그러므로

14) 리바코프스키(1990)는 다음과 같은 점을 말한다. 러시아 극동에서 인구이동의 특징 중 하나는 시베리아에서 온 ‘뉴커머’가 러시아의 서부에서 온 사람들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주의 ‘물결’은 러시아 서부에서 시작되어 러시아 극동으로 흐른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을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 ‘뉴커머’, ‘이주자’와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전략적으로 ‘현지인’, ‘기존 거주자’, ‘연해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Chen 2003: 42).<sup>1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인맥을 얻은 것처럼 보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산은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다른 유형의 코리안과 협력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인맥이 소련시절 반한감정(anti-Korean sentiment)의 맥락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한다. 바슈(Vashchuk) 등이 서술한 한 기존 거주자 코리안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2002: 118), 1950년대 그가 가족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돌아왔을 당시 이웃들은 “여기 니그로(negroes)가 왔다!(*Ponaekhali suda negry*)”고 소리쳤다. 또한 1950년대 후반 제도적 지원 없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귀환한 많은 코리안은 주택과 고용 같은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던 코리안의 생활 여건이 향상된 것에 비해 초기 귀환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다. 1세대 귀환자 다수는 이 지역으로 ‘조용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국영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1934년에 태어나 1950년대에 연해주로 왔고 예카테린부르크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안나 블라디미로브나(Anya Vladimirovna) 할머니는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저 출산휴가 혹은 병가 대체인력 자리만을 간간히 얻을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과거에 우리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코리안을 매우 불쌍히 여겼다’고 기억했다. 즉 연해주 귀환 코리안 1세대는 주로 국영농장과 임시계약을 맺고 개인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2세대는 교육을 받은 후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존 거주 코리안은 이전과 현재를 비교하였을 때, 이 지역에 코리안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코리안이 지금 이곳에 더 많이 살고 있어서 전 보다 좋다’고 한다. 그러나, 연해주 코리안이 내리는 긍정적 평가는 맥락화가 필요한데, 여전히 민족문제(the question of nationality)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해주 코리안 소수자가 전반적으로 과거가 나쁘다고 인식했던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온 뉴커머 코리안은 민족문제에 있어서 과거는 좋았지만 현재는 나쁘다고 평가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연해주 코리안 소수자는 필자와 같이 낯선 사람과 이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 미묘한 두려움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기존 거주 코리안은 중앙아시아 출신 뉴커머가 있을 때만, 그리고 뉴커머 코리안이 과거를 주저 없이 이야기 할 때만 사회적 맥락에서 과거를 이야기했다.

필자는 그들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려하거나 거절하는 행동에서 그들의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는 민족지학적 맥락의 미묘한 점이다. 예카테린부르크 졸업자인 안나 블라디미로브나와의 만남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녀가 소련 시절 이 지역에서 코리안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그 주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추가적인 질문을 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그녀는 환대하던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대화를 끝내고자 했다. 필자는 다른 기존 거주 코리안과의 대화에서도 민족문제가 나오자 대화의 흐름이 끊겼던 비슷한 경험을 했다. 사실 중앙아시아에서 온 뉴커머 코리안의 대다수가 무심코 이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필자는 그 순간까지 이 주제의 민감성을

15) 첸(Chen)(2003)은 특히 1990년대에 몇몇 코리안이 처음 만나서 서로 소개할 때 지역의 거주기간이 ‘배경정보(obstoiatel'stvo)’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깨닫지 못했다. 이 주제로 돌아가기 전에, 1990년대 뉴커머 코리안의 정착과정과 그들의 이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하고자 한다.

## 뉴커머 코리안과 이주레짐

1990년대 초중반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코리안의 이주와 정착과정은 마을 또는 국영기업의 경계 내로 특정 집단을 받아들이는 데 암묵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연해주에서 소련식 집단공동체(Soviet-type collective)는 지역적 맥락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때 여전히 유의미한 범주였다. 이 단계에서 집단공동체의 일부로서 개인의 법적 지위는 문제가 없었으며 암묵적 허가(covert admission)를 통해 특정 집단은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sup>16)</sup> 중앙아시아 난민 유입의 둔화와 경제난에 따른 이주 증가로 이러한 추세가 변화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즈음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동기부여에 기반한 이주는 이기적이며 공동체적 가치에 해로운 것이라 여겨졌다. 또한 상인을 향한 극도의 혐오가 나타났다. (Humphrey 1999; Dyatlov 2000).

1990년대 초반의 이주에 비해 중앙아시아 출신 코리안의 다수는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개별적인 방문자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일시적으로 들어와 두 지역을 오가며 상업 활동에 종사했다. 친족 관계는 중앙아시아 출신 코리안이 ‘둘러보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하도록 동기 부여하는데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들을 정착하게 한 것은 기업가적 활동에서 거둔 예상치 못한 성공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사례는 1958년에 태어난 레나(Lena)라는 여성이다. 그녀는 우수리스크에 있는 중국시장의 가판대에서 모피코트를 판매했다. 그녀는 원래 사촌의 초대로 1992년 우수리스크에 왔다. 이주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수리스크로 왔다. 그녀는 타슈켄트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다. 1990년대 초반, 다른 많은 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방학 동안 중국에서 양고라 셔츠를 수입하여 장사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한 지인으로부터 2,000달러를 빌렸지만 장사가 성공적이지 못해 빚을 지게 되었다.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우수리스크에 거주하는 그녀의 사촌이 자신에게 올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여름 휴가 때 남편과 함께 사촌동생의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중국 코리안(조선족)에게 채소를 사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 구매자가 매일 줄을 섰고 장사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타슈켄트로 돌아가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녀는 방학마다 이러한 활동을 몇 년 더 지속하였고 우수리스크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다. 1995년 그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우수리스크에 완전히 이주했다.

레나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중앙아시아로부터 코리안이 쇠도한 비슷한 시기에 그곳에 온 중국 코리안과 연계했다. 이를 통해 빠르게 경제적 이익을 얻어 러시아 극동지역에 정착할 수 있었다.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구소련의 오래된 국영기업들이 몰락하자 부의 원천은 올리가르히(oligarchs)의 독점 아래에 있는 석유와 가스 같은 천연자원으로 한정되었으며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생산 부문의 악화로 인해 러시아 극동지역 일반 대중은 외국 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빠르게 경제적

16) 또한 당시까지 중앙아시아의 집값은 1990년대 후반과 비교해 그리 낮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중앙아시아의 집값은 하락한 반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후에 온 이주자들은 정착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일부 러시아 코리안은 중국 코리안 상인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민족 내부 협력은 다음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가능했다.

첫 번째로, 러시아 코리안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 재배치되기 전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국 코리안과 서로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조상이 한반도 북부에서 왔다는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덕분에 그들은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언어적 차이로 인해 러시아 코리안이 필자의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중국 코리안과 대화 할 때는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다.<sup>17)</sup> 중년 이상의 코리안(1937년 강제이주 이후 1세대 또는 2세대) 다수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부터 모국어를 잃은 것을 한탄했으나, 그들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고려말'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방언이 섞인 한국어를 조금 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sup>18)</sup> 일반적으로 그들은 “집에서 우리 부모님은 고려말로 말하고, 우리는 러시아어로 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이들이 방언이 섞인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다면, 이는 1990년대 중반에 장사를 위해 중국상품을 확보하고 통역가로 일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사례일 뿐이다. 1990년대 말까지 다수의 중국 코리안이 이미 현지 코리안과 연계를 구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에 중앙아시아 출신의 뉴커머 코리안은 1990년대 말부터 중국시장에서 무역상으로 고용되어 일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언어능력에 더하여 개인적인 능력과 네트워크는 이 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 상황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코리안 여성이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하며 요리 기술로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다. 필자가 만난 한 노부인은 1990년대 초반 한 의복 공장에서 은퇴하였다. 그녀는 중국에서 앙고라셔츠를 대량으로 가져온 중국 코리안과 알게 되었다. 상품들은 수입 과정에서 구겨졌기 때문에 판매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구겨진 앙고라셔츠를 아름다운 솜털 셔츠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는데, 이는 이후 현지 소비자에게 크게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이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딸을 위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소련 시대에 습득한 이러한 개인적인 기술은 ‘중국’ 인맥과의 연결에 더해 현지인의 능력과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었다. 1995년 총격으로 살해당하였으나 ‘위대한 사람(a great man, *ogromnyi chelovek*)’이라 기억되는 미하일 김(Mikhail Kim)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농업 회사, 그리고 채소 도매시장의 큰 부분을 포함하여 도시에 몇몇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었다.<sup>19)</sup> 그는 1991년 카자흐스탄 우수토베에서 연해주로 왔으며 텔레비전 수리공으로 일했다. 그는 국영기업의 수석 수리공 지위로 승진하였으나 토착 민족주의(autochthonous nationalism)가 강해지기 시작하자 그는 ‘활동이 아니라 민족 범주(nationality)로 사람을 평가하는 제도 내에서 커리어는 더 이상 전망이 없다’고 보고 제도권 밖으로 떠나 사업을 꾸렸다 (Chen 2003). 소련이 무너지자 그는 우수리스크로 이주하였고, 우수리스크 도시 행정위원회에 개인 회사를 등록하였다. 그는 식품 판매부터 시작

17) 한반도의 북부에서 사용되는 조선어를 '육진(六鎭)방언'이라고 한다. 육진은 15세기 조선왕조가 세운 '여섯 개의 정착지'라는 뜻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여러 외국인(지금의 '토착민족(indigenous peoples)')침입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정된 요새에 정착하게 하여 동화시킬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킹(King)(2006)을 참고.  
 18) 러시아 부랴트인들 사이에서는 가정의 언어(domestic language)로서 모국어(native language)와 유사한 비유가 발견된다. 험프리(1989)를 참조.  
 19) 필자는 그가 이 도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에서 적대자들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들었는데, 더 이상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이 남성에 대한 다음의 정보는 천(Chen)(2003:57-63)의 연구에 있다.

하여 신발을 수리하고 만드는 작업장으로 사업을 변경했고, 부츠를 수리하는 동안 자신의 브랜드 신발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공장을 만들고자 준비했다. 그러나 국경이 개방되자 갑자기 중국에서 수입한 값싼 신발과 부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공장을 건설하는 대신 중국 코리안과 협력하여 신발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수입하여 해외무역에 종사했다.<sup>20)</sup> 그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중국 코리안만이 아니라 현지 당국과 연계가 있는 기존 거주자와의 인맥도 중요했다.<sup>21)</sup> 이에 따라 코리안 기업은 중국 코리안과의 연계, 비즈니스 관련 개인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현지 당국 및 마피아 단체로부터의 보호라는 삼각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확장되었다. 사업 확장은 앤더슨(1996)이 제시한 시민권레짐의 경계 바로 바깥이나 근처에서 형성된 이 삼자관계에서 자신의 위치(location)에 달려 있었으며, 미하일 김은 이주레짐의 전형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준다.

## 외부자 코리안(Other Outsider Korean)과 반(反)이민정서의 고조

1990년대부터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연해주로 온 다른 부류의 코리안 주민이 늘어났다. 남한 사람들은 대개 사업에 종사하거나 기독교 선교활동으로 왔다. 반면 북한 사람들은 계약 노동자로 왔다. 동북아시아에서 온 코리안은 대체로 상인이었다. 이러한 '외부 코리안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해 현지의 러시아 코리안(Russian Korean)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들은 러시아 코리안을 고용하고 사업에서 협력하여 보답했다. 이러한 코리안 중에서 스스로를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인 코리안이 가장 큰 집단이다.<sup>22)</sup> 조선족은 보통 중국인으로만 여겨지는데, 그들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 밀접하게 조선족과 교류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일부 중국인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sup>23)</sup>

20) 그는 또한 '우수리스크에서 코리안을 위한 민족문화 자치단체(National and Cultural Autonomy for Korean in Ussuriisk)' 초대의장으로 민족부흥운동(national revival movement)에 열정을 쏟았다.

21) 데칼코마니의 대칭처럼, 중국에서는 성공담의 나머지 반쪽이 있다. 이 이야기들은 현지 중국 코리안(조선족) 신문과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http://www.krcnr.cn/jj/qyft/201202/t20120226\\_265533.html](http://www.krcnr.cn/jj/qyft/201202/t20120226_265533.html)> (Anon 2012)은 러시아와의 국경 무역을 통해 '창립자본(original capital)'을 축적한 조선족 사업가의 성공담을 다루고 있다. 그는 현재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대기업 그룹의 CEO다. 이 이야기의 다른 부분까지 더 논의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성공한 사업가가 '러시아에 있는 코리안들'(한국어로 러시아 조선족) 덕분에 러시아에서 돈을 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2) 필자는 이 조선족에 대한 적절한 현장연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현장연구는 1990년대에 중앙아시아에서 온 코리안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이 글의 자료는 제한되어 있다. 조선족을 다룬 일반적인 소개를 위해서는 올리비에(Olivier)(1993)를 참고하라. 그리고 조선족의 형성에 대해 좀 더 충분한 역사적 조사를 위해서는 박현옥(2005)을 참고하라. 이정영(2005)은 그의 연구에서 조선족의 러시아 극동 이주를 다룬 예비조사결과를 제시하는데, 이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 이 집단의 정확한 규모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정영은 2002년 우수리스크에서 약 1,000명에서 1,200명의 상인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3) 중국인이 단일한 인종(race) 또는 민족(ethnic) 범주로 간주되고 그들 사이에 별다른 구분이 없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중국인에 대한 이러한 인종적 이미지는 현지인들이 그들을 민족적으로 코리안(ethnic Koreans)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한 심사위원은 중국 코리안(조선족)이 아마도 '뉴커머 코리안'으로 간주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으나, 코리안의 종족성(Korean ethnicity)은 전혀 가시적이지 않으며, 2000년대에 나타난 로컬리티의 개념이 중국 코리안과 러시아 코리안 사이의 민족적 공통성을 경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반중(反中) 조치로 중국 코

이에 대해, 우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중국 코리안이 현지 코리안과 교류하더라도 결코 코리안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여러 동부 지역에서는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무역업자와 무역 활동이 늘어나자,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은 혁명 이전 '황화(黃禍)'의 망령과 같이 중국이 러시아의 동쪽을 장악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다. 동아시아인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노란 얼굴'과 '가는 눈(slit eyes)'과 같은 모욕적 언어를 통해 러시아 극동에서 중국인 공포(Sino-phobic)라는 인종차별적 분위기가 나타났다. 러시아 코리안도 이러한 인종적 반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는데, 그들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아시아인으로서 신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반중정서의 영향과 2002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로부터의 이민은 더욱 강하게 통제됐다. 이는 1990년대 말부터 러시아 극동에 온 코리안 이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민족주의적 수사라는 측면에서 경계를 재설정하며 집단공동체와 로컬리티 관념이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러시아 코리안은 자신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그들은 다른 유형의 코리안들과 거리를 두었고, 둘째, 러시아 연방이 지닌 다민족적 성격을 강조하며 소련에 오랜 애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국가의 경계를 확장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조선족과 협력하여 대중(對中) 목재무역을 통해 큰 부를 쌓았는데, 그는 “조선족들이 중국인과 비슷한 것처럼, 우리는 러시아인(*rossian*)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 나는 남한 사람들과 교류할 때 역시 스스로를 그들과 다르다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러시아에 소속한다고 주장할 때 민족적(ethnic) 러시아인을 지칭하는 ‘루스끼(*russkii*)’가 아니라 러시아 국민을 지칭하는 ‘라시아닌(*rossiiani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sup>24)</sup> 이 글의 첫머리에서 소개한 보츠와나의 코스모폴리탄적 민족성에 대한 워브너의 토론에서, 칼랑가는 보츠와나의 소속을 국민적 용어로 주장하고자 했고, 그들에게 국민화는 ‘츠와나화(Tswana-isation)’가 아니라 ‘보츠와나화(Botswanaisation)’를 의미했다 (Werbner 2002: 752). 마찬가지로, 고려인들에게 연해주의 국경 만들기는 슬라브화가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러시아화여야 한다. 그러나 소련 시절 슬라브 민족주의(Slavic nationalism)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를 내면화해야 했던 기존 거주 코리안 보다는 중앙아시아 출신 코리안들이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경계 재설정하기(boundary remaking)라는 측면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좀 더 자세한 민족지학적 이야기와 더불어 러시아 코리안이 러시아에 보이는 충성은 과거 소비에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리안은 정착이주민이라기보다는 임시체류자로 남아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전입이주민(*incomer, priezhnie*)'로 간주되지 않고, 단순히 중국인이나 외국인으로 여겨진다. 이는 사포노바(Safonova)와 산타(Santha)(2010)가 논의한 바이칼 지역의 현지 중국인의 사례와 대조된다. 비록 그들의 이질성(*foreignness*)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현지인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글이 제시한 사례와 사포노바와 산타가 제시한 사례 사이의 지역적 차이를 알 수 있다. 1937년에 코리안이 중앙아시아로 재배치 되었을 때, 현지여성(*indigenous women*)과 결혼한 소수의 중국인 남성을 제외하고 러시아 극동에 살던 중국인은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24) 민족적으로 러시아인인 필자의 친구들은 러시아국민(*rossiianin*)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어색하고 생경하게 여겼다. 그들은 구어로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국적법의 개정과 그것이 뉴커머 코리안에게 미치는 영향

전부는 아니지만 1990년대 초중반 경에 러시아 극동에 온 다수의 코리안은 보다 유리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 아래 정착한 반면, 이후에 온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뉴커머 코리안에게 유리했던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 무역상들은 1990년대 후반 우수리스크에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거래장소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인맥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주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 가장 분명한 변화는 2002년 7월에 시행된 러시아 국적법의 개정이었다. 국적법의 개정 이후에 도착한 이주민만이 아니라 개정 이전에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왔던 이주민도 불이익을 받았다. 개정된 국적법은 러시아 시민권의 취득을 지연시키고 더 어렵게 만들어서 불법 이민자의 러시아 유입을 제한하고자 했다. 1992년 2월에 통과된 구소련 국적법에 따르면 구소련 시민은 구소련 여권에 표(slip)를 붙이는 것만으로 러시아 여권으로 바꿀 수 있다. 심지어 러시아 여권을 사는 것도 가능했다. 2002년까지 '가까운 해외(CIS 국가)'<sup>25)</sup>의 이민자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는 여러 서류와 권리의 근거가 되는 거주허가증(propiska)이었다. 2002년까지는 일단 거주허가가 나면 러시아에서 3년간 거주한 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주허가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는 새로운 법 때문에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다. 먼저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최소 7년이 걸렸다. 즉,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3개월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해야 하는 2년 연한의 임시거주증(vremennoe prozhivanie)과 5년 연한의 영주권(vid na zhitel'stvo)이 필요했다. 둘째, CIS국가의 국민은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그들의 이전 국적을 무효화해야만 했는데, 이는 개인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 러시아와 해당 국가 사이의 외교적인 문제가 된다. 이로 인해 국적을 러시아로 자유롭게 바꿀 수 없었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반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각각 1999년과 2001년에 국적 변경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러시아와 상호 합의했다. 셋째, 이러한 제한만이 아니라 일련의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에 예치금을 맡기며 수수료(fee)를 내야 한다. 이주자들은 또한 3개월마다 에이즈 및 기타 의료검사를 받아야 하고, 모국어가 러시아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어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비용을 내야 한다. 2003년 상반기 러시아 전역에서 213명만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Semenova 2003).

소련 시절에는 거주허가가 직장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것은 '권리다발'의 일부로서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보장했다 (Anderson 1996). 거주허가와 국내여권제도(internal passport system)는 일과 거주지를 나눌 때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sup>26)</sup> 그러나, 이 시스템은 모두를 통제할 수는 없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제도의 시선을 전복시킬 수 있는 여러 허점을 남겼다. 심지어 주민통제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이주한 사람들이 주변부에 용인되어 속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는 기존 거주 코리안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정착할 때 그러했던 것처럼, 소비에트의 공식적인 경제체제의 틈새를 메우고 있다. 험프리(2001: 333)

25) 비록 러시아 극동과 중앙아시아 간의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는 '가까운 해외(near abroad)'라고 묘사된다. 바숙 등(Vashchuk et al.)(2002)은 러시아 극동에서 이 불일치를 인지하며, CIS 국가들에게 '신(新) 해외(new abroa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외국들에게 '전통적 해외(traditional abroad)'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26) 이 관행은 러시아 제국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나 혁명으로 폐지되었다. 1932년에 스탈린은 이 국내여권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가 지적했듯이, 이 제도는 이주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

2002년 국적법의 개정은 그러한 '권리다발'의 해체를 보여준다. 버클리(Berkeley)(1995: 915-16)가 지적했듯이, 거주허가증과 여권제도는 소련 시절 '인구분포에 대한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전달자'였던 반면, 이러한 시스템은 포스트 소비에트 이후 과도기 동안 사람들이 그 지시에 따르게 하기 위해 개인 주택 소유자와 개인 노동자가 되도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거주등록과 여권제도는 민영화 및 자본화 과정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주택을 공급받고 일을 할당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에도, 거주허가<sup>27)</sup>를 위해 집을 사고 러시아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고용상황은 소련 시절 같다고 여겨지지도 않고, 서구식이나 자본주의 방식으로 개념화되지도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시장에서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하는 코리안처럼 가족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다. 여기서 일(work)은 경제실체(economic entity)와 법인(juridical individual)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두 개인의 관계로서 배치된다. 그러므로, 국적법은 서유럽의 제도를 본떠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현실은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회 전략과 단순화된 책략(*uproshchennaiia skhema*)을 위해 뇌물공여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국적법의 변화는 2002년 7월 이전에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다수의 코리안이 제때에 시민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리안이 시민권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 늦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거주허가를 받은 경우 많은 코리안은 러시아 시민권이 그다지 유용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아주 적은 수준<sup>28)</sup>이긴 했으나, 연금 수령자들은 연금을 받기 위해 국적법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했다. 반면 근로 연령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시민권이 없더라도 불이익이 없었고, 시민권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귀찮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남한으로의 이주 노동이 증가하면서 시민권 문제가 쟁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주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이 러시아 시민권을 갖지 않은 이들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정책은 이후 바뀌긴 했지만 말이다.

둘째, 1990년대 후반까지 구소련에 대한 소속감과 더불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사이에 국경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CIS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 나라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러시아에서는 더 그렇게 보였는데, 러시아가 소련의 후계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속감은 코리안이 이주 후에 겪어야 했던 불이익, 특히 국적법의 제약이 강화됨과 더불어 모호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커머 코리안이 보이는 끈질긴 낙관주의가 흥미롭다. 사샤(Sasha)라는 한 남성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그는 러시아 시민권 없이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곧 해결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들었다”<sup>29)</sup>고 말했다. 사샤의 낙관주의

27) 다수의 러시아 코리안은 거주등록을 할 때 집을 소유한 가족이나 친척들의 주소를 이용해 등록함으로써 도움을 받는다. 뉴커머 코리안 중에서 법 개정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는 그러한 친척이 없는 사람들이다.

28) 고령의 코리안 다수는 중앙아시아에서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 연금을 전액 청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체로 2003~2004년에 600루블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만을 받았다. 이후 연금액이 급증해 2010년에는 최소 3~4,000루블에 달했지만 생활비와 주거비도 함께 상승했다.

는 민족적으로 러시아인이며 CIS 국가 출신인 사람들(ethnic Russians from CIS countries)과 그가 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직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새로운 국적법이 CIS 국가에서 온 '동포(sotekhestvenniki)'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항의 속에 코리안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개발자로서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슬라브계 러시아인과 결부된다.

중앙아시아의 코리안은 결코 그들 자신을 토착민(autochthonous people)에 비해 열등하거나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를 함께 개발한 존재로서 러시아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기존 거주 코리안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다. 이러한 생각은 코리안이 극동지역 현지 러시아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서 드러난다.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이 온 코리안들은 “이곳 연해주에 있는 러시아인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인과 완전히 다르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흥미롭게도, '여기'와 '저기'를 비교하는 것은 특정 맥락에서 '지금'과 '이전'으로 전환된다. 그 특정 맥락이란 국적 문제가 부각되고 기존 거주자와 뉴커머 사이에 서로 다른 경험이 대화에서 절합될(are articulated) 때를 말한다.

## 로컬리티의 변화

연해주에서 세 집단의 코리안이 펼치는 삼자 교류에서, 중앙아시아 출신의 뉴커머 코리안은 민족문제에서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로컬리티 관념과 관련이 있다. 기존 거주 코리안과 뉴커머 코리안 양쪽 모두 그들과 그들 조상이 1937년에 강제이주를 경험하여 중앙아시아에 살게 되었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매일 벌어지는 교류에서 두 집단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게다가, 그들 가운데 다수는 친척 관계에 있거나, 결혼을 통해 협력<sup>30)</sup>하고 있는데, 이는 두 집단이 하나가 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두 집단은 민족차별 문제를 서로 다르게 인식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연해주에서 '민족차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에피소드면 충분할 것이다. 첫 번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마을에 사는 한 부부의 이야기다. 남편 레오니드(Leonid)는 1960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 아내 올가(Olga)는 1974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다. 레오니드는 1968년 연해주에 온 기존 거주자인 반면, 그의 아내 올가는 1995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해 왔다. 필자는 초청을 받아 저녁 식사에 가서 '민족문제(the nationality question)'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오니드: 민족문제는 소련 사회주의 시절에 공식적(ofitsial'no)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v samom dele) 존재했습니다.

올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민족문제는 없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후에야 민족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박현귀: 60년대 말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 시기에 코리안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29) 2003년과 2006년 초 실제로 푸틴은 CIS 국가에서 온 이민자를 위한 국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30) 기존 거주 코리안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코리안이 더 많아져서 같은 민족 간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곤 했다.

다. 사실입니까?<sup>31)</sup>

레오니드: 네, 코리안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제가 중국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형제와 아버지가 그 분쟁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전(before)'과 '지금(now)'이 나란히 놓인 채, 남편과 아내가 민족문제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필자는 몇몇 나이가 지긋한 코리안들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게 된 적이 있다.<sup>32)</sup> 필자는 1992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온 스베타 세르게예브나(Sveta Sergeevna) 할머니와 1960년대 사할린에서 연해주로 온 강옥순(Kang Ok Sun) 할머니와 함께 한 코리안 노부부의 집을 방문했다.<sup>33)</sup> 이 노부부는 1930년대에 하산지역(Khasanskii Raion)에서 태어났다. 이 지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1937년까지 코리안이 이곳 인구의 약 90%를 차지했다. 이 노부부는 1957년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이주했고, 최초의 귀환자 중 한 명이었다. 이 부부와 인터뷰가 끝날 무렵 스베타 세르게예브나는 사람들이 '코리안만이 아니라 같은 일에 종사하는 러시아인도 마찬가지로 차별'에 대해 불평했다.<sup>34)</sup> 강씨는 "지금은 민족차별이 완화되었지만, 과거에는 매우 심각했다"고 불만을 드러내었고, 노부부는 강씨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자 스베타 세르게예브나는 그들의 의견에 반대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올라가 말했던 것과 같이 목소리를 높이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화목하게 지냈지만, 소련 붕괴 이후 민족차별이 심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전'과 '지금'의 시간성(temporality)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거주자와 뉴커머 사이에 민족차별에 대한 평가가 뒤바뀌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제도화된 차별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코리안이 말하는 이 '민족적 차별'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험프리가 논의한 배제/포용(exclusion/inclusion)의 정치인데, 코리안이 동어반복적인 방식(tautological manner)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는 점을 들어 그들이 우리를 험담한다(rugayut)', '우리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경찰이 서류를 받지 않고 우리를 쫓아낸다' 등이 있다.<sup>35)</sup> 러시아 코리안은 이를 거의 존재론적 문제로 여긴다. 둘째, 배제와 관련하여, 같은 주제에 대해 두 코리안 집단이 내린 상반된 평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의 문제가 있다. 필자는 2000년대에 로컬리티에 대한 다른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 뉴커머 코리안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주목한다. 간단히 말해서, 필자가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뉴커머 코리안은 과거와 '소비에트성(Soviet-ness)'으로 로컬리티를 포괄한다.

31) 1969년 한카호수(Khanka Lake)의 한 섬에서 중러 국경 군대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다만 사건(Damanskoe sobytie)'라고 한다. 이 분쟁 후 반중(反中)을 구호로 하는 대중시위와 집회 피켓시위가 조직됐다. 코리안은 '동아시아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반중 동원의 표적이 되었다. 기존 거주자인 또 다른 남성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딸의 얼굴에 침을 뱉자 딸이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자주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32) 이 대화는 한국어로 진행됐다.

33) 이 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후 사할린 섬에 발이 묶인 강옥순 같은 코리안에 대해 더 자세한 맥락은 제공하지 않겠다.

34) 소련이 거래 활동을 비난했기 때문에 상인이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상인은 경제체제의 사회주의적 계획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보다는 교환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험프리(1999)와 다아틀로프(2000)는 시베리아에 있던 이러한 반무역적 분위기를 논한다.

35) 다수의 코리안은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코리안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인 등 비 슬라브 민족 집단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뉴커머 코리안의 위치는 짐멜(Simmel)의 연대의 사회학(sociology of association)에서 이방인과 비슷하다. 짐멜(1971:144)에 따르면, “이방인은 그 집단 자체의 한 요소인데, . . . 그 집단 내 구성원의 자격은 집단 바깥에 있는 것과 그것에 대항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관계 내의 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 낮섬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음을 의미한다”(1971:143). 그러나 흥미롭게도 연해주에서 코리안의 경우에 코리안의 로컬리티는 더 낮선 이방인의 존재나 다른 부류의 코리안 이주민, 특히 조선족과 남한사람을 통해 강화되고 확인된다는 점이다.<sup>36)</sup>

필자의 대화자(interlocutor) 중 한 명인 나타샤(Natasha)는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우수리스크 시로 가는 여행 중에 열차 차장과 나눈 대화를 필자에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의 뉴커머 코리안들이 어떻게 연해주에서 '이류(second class, *vtoroi sort*)'가 되었는지 예를 들기 위함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소속되어 있다는 상당한 확신을 얻지시 드러내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필자에게 들려주었다. 열차의 차장은 검문을 위해 그녀와 동행자들에게 신분증명서를 요청했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 대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차장: 당신들은 누구입니까?(Who are you?)(Kto vy?)<sup>37)</sup>

나타샤: 우리는 코리안(Koreans)입니다. (My koreitsy)

차장: 어떤 코리안이요? 중국의? 아니면 그 밖의? (Kakie? Kitaiskie, chto li?)

나타샤: 우리는 현지인, 소비에트 코리안(Soviet Koreans)입니다.(My mestnye, sovetskie koreitsy)

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더 묻지 않고 떠났다.

중국 코리안 또는 남한과 북한사람과 같은 이방인이 나타난 덕분에 그들의 소비에트 현지성(localness)은 기존 거주자와 뉴커머 코리안을 결합시켰다. 그들은 지역민으로서 거주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제3자의 존재에 의해 정치적 용어로 나타나고 승인된다.

## 맺음말

이 글에서 필자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코리안 이주민의 민족지학적 사례를 통해 러시아 극동의 포스트 소비에트 변화 속에서 이주 과정에 드러난 민족성의 복잡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글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코리안의 이주를 맥락화하여 소련 시절 국가주도의 이주 정책과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에 그것의 지속적인 변형을 보여주는 모종의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살펴보았다. 이는 일종의 부차적이고 비공식적인 레짐이 시민권레짐을 수반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시민권레짐은 앤더슨(1996)이 러시아에서 집단공동체의 작동 방식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인데, 필자는 이처럼 이주를 둘러싼 부가적이고 비공식적인 체계를 이주레짐이라고 불렀다.

36) 따라서 '로컬(local)'과 '낯선(strange)'이란 단어는 특정한 집단에 고정된 용어가 아닌 상대적 용어이다.

37) 러시아의 소수민족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은 '민족'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러시아인들은 이 질문을 직업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기존 거주자와 뉴커머 코리안 모두 연해주에서 민족차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서 민족문제에 대한 평가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민족문제를 평가할 때 시간의 영향으로 인해, 시간은 '연결하는 것보다 분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Casey 1996: 30). 즉, 뉴커머 코리안은 '그곳'과 '이곳'이라는 공간적 측면이 아니라, '이전'과 '지금'이라는 시간적 측면의 경험에 기반하여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전'과 '지금'이라는 분수령은 소련의 붕괴에 의해 야기된 것이었으며, 뉴커머 코리안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극동으로의 이동을 통해 이를 경험했다.

그러나 일상의 경험에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두 집단 모두 연해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에 차별을 겪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바로 이 장소(the place)가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모으는(gathers)' (Casey 1996) 것이다. 케이시(Casey)는 이 장소 모으기(this place gathering)가 '담아내고 버리기(hold in and out)' 위한 '체(sieve)'와 같다고 덧붙였다.

장소와 관련하여 모이는 것은 주어진 장소에서 표현된 것만이 아니라 제시된 것에 대해 독특한 영향력을 갖는다. 장소는 단지 내용만이 아니라 내용을 담는 방식도 담지한다. '담는 것이 담기는 것이다(The hold is held)'. 장소의 담기(the hold of place), 그것의 모으는 행위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첫째로, 그것은 특정한 배열로 모으기 위한 담기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한 장소에서 사물들의 질서정연한 배열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이고 상당히 상충한다. 둘째로, 그 담기는 담아내고 버리는 것(holding in and holding out)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 경계 안에 있는 한 장소의 점유자들을 품고 있다. 만약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장소가 영원히 비게 된다면,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허공(void)가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장소는 거주자(inhabitants)에게 손짓하며, 그들을 모으고, 그들이 보이게 하면서 지속되는데, 이는 장소가 제시하는 끝자락으로 장소의 점유자(place holder)를 이동시키면서도, 그 환경 내부에서 장소의 소유자를 붙잡는다. (Casey 1996: 25, 그의 강조)

담아내는 장소라는 그 '체'가 역사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담아내고 버리는 그 체'는 소비에트 시기를 그 경계에 위치시켰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중앙아시아 출신의 뉴커머 코리안은 연해주에서 새로운 정치·경제적 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기존 거주 코리안이 느꼈던 두려움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연해주에서 로컬리티 관념은 시간적 차원에서 1937년 이전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그때는 중국과 소련에 있는 코리안(Koreans on the Chinese and Soviet side)이 서로를 다른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한반도 북부로부터 러시아 극동지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가거나, 중국을 경유하여 러시아 극동으로 가는 우회로를 활용하여 왕래하고 이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적 역학은 이러한 시간성에 의해 분리하는 힘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소비에트에 뿌리를 두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뉴커머 코리안이 주장하는 로컬리티 관념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Anderson, D.G. 1996, Bringing civil society to an uncivilised place: citizenship regime in Russia's arctic frontier, in C. Hann & E. Dunn (ed.), Civil society: challenging western models: 99-120. London & New York: Routledge.

「국경서 생사 넘나들던 보따리상 조선족 최고 기업가의 하나로」, 『흑룡강신문』, 2012. ([http://www.krcnr.cn/jj/qyft/201202/t20120226\\_265533.html](http://www.krcnr.cn/jj/qyft/201202/t20120226_265533.html) 접속일자: 2012.4.14.)

Buckley, C. 1995. The myth of managed migration: migration control and market in the Soviet period. Slavic Review 54(3): 896-916.

Casey, E.S. 1996. How to get from space to place in a fairly short stretch of time: phenomenological prolegomena, in S. Feld & K.H. Basso (ed.), Senses of place: 13-52. Santa Fe: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Chen, N. 2003. Deti svoego naroda: knigi o priporshkikh koreitsakh [Children of our nation: a book on Primorskii Koreans]. Tashkent: Izdatel'stko-politicheskii tvorcheskii dom imenii Gafura Gulyama.

Dyatlov, V. 2000. Anti-immigrant attitudes in the socio-political life of a Siberian city: the example of Irkutsk, Inner Asia 2(1): 13-24.

\_\_\_\_\_. 2012. Chinese migrants and anti-Chinese sentiments in Russian society, in Frontier Encounters: Knowledge and practice at the Russian, Chinese and Mongolian border: 71-87. Cambridge UK: Open Book Publishers.

Humphrey, C. 1989. 'Janus faced signs': the political language of a Soviet minority before Glasnost. Sociological Review 36: 145-75.

\_\_\_\_\_. 1999. Traders, 'disorder', and citizenship regimes in provincial Russia, in M. Burawoy & K. Verdery (ed.), Uncertain transition: ethnographies of change in the postsocialist world: 19-52.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_\_\_\_\_. 2001. Inequality and exclusion: a Russian case study of emotion in politics. Anthropological Theory 1(3): 331-53.

Kim, G. & Men, G. 1995. Istoriia i kul'tura koreitsev kazakhstana [History and culture of Kazakhstan Koreans] Almaty: Izdatel'stvo 'Gylym'.

King, R. 2006. Korean dialects in the former USSR: Reflections on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Panguhak 3: 127-53.

Kotkin, S. 1995.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e, J. 2005, *The Korean-Chinese Migration into the Russian Far East: a human security perspective*, in A. Iwashita (ed.),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in the 21st Century: Partners in the 'Community of Asia'*. V01. 1: *Crossroads in Northeast Asia*: 67-94, Sapporo: Slavic Research Center.

이광규, 1998,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Olivier, B.V. 1993.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Nationality Policy in the Northeastern Provinces*. San Francisco: Mellen Research University Press.

Panarin, S.A. 1999. *Ethnicheskaiia migratsiia v postsovetskom prostranstve* [Ethnic migration in post-Soviet space], in A. Vyatkin, N. Kosmarskaya & S. Panarin (ed.), *V Dvizanii Dohvol'nom i Vynuzhdennom: Postsovetskie Migratsii v Evrazii* [On the move voluntarily and forcibly: post-Soviet migration in Eurasia]: 30-77. Moscow: Natalis.

Park, H.O. 2005. *Two Dreams in One Bed: Empire, social life, and the origins of the North Korean revolution in Manchuria*. Durham (NC)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ilkington, H. 1998. *Migration, displacement and identity in Post-Soviet Russia*. London: Routledge.

Rybakovskii, L.1990. *Naselenie Dal'nego Vostoka za 150 let* [150 Years of Settlement in the Far East]. Moscow: Nauka.

Safonova, T. & Santha, I., 2010. *Being local outsiders: a study of Chinese ethos in East Siberia*. *Inner Asia* 12(2): 347-64.

Semenova, I. 2003. *Grazhdane poshli na popravku*. *Rossiiskaia Gazeta* 3345 (14 November).

Simmel, G. 1971. *The stranger*, in D. Levine (ed.), *On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s*: 143-9.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sori-Chaikov, N. 2003. *The social life of the state in subarctic Siberi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Vashcuk, A.S., Chermolutskaya, Ye.N., Koroleva, V.A., Dudchenko, G.B., & Gerasimova, L.A. (ed.). 2002. Ethnomigratsionnye protsessy v Primor'e v 20 veke [Ethnic migrational processes in Primorye in the 20th century]. Vladivostok: DVO RAN.

Verdery, K. 1998. Transnationalism, nationalism, citizenship, and property: Eastern Europe since 1989. *American Ethnologist* 25(1): 291-306

Werbner, R., 2002. Cosmopolitan ethnicity, entrepreneurship and the nation: minority elites in Botswan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28(4): 731-53.